투어 번호
LKGR3NCBND

세일론의 최고 (16일)

15일 · 1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6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서해안, 깊은 남쪽, 건조 지역의 야생동물 지역, 산악 지역, 문화도시 캔디를 아우르며, 편안한 속도로 진행되며 여러 밤을 묵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고롐보의 해변에서 시작하여 갈레와 그 식민지 요새를 지나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야라에서 야생동물 사파리를 계속한 후, 엘라와 누와라 엘리야 주변의 고지대로 올라가 캔디에서 마무리됩니다.

여행객들은 해안, 야생동물, 풍경, 문화유산이 혼합된 경험을 얻습니다: 갈레 근처의 거북이 보존 활동과 맹그로브 강 여행, 야라 국립공원의 표범과 코끼리 사파리, 엘라의 나인 아치 브릿지와 리틀 애덤스 피크, 누와라 엘리야 근처의 호턴 평원과 월드스 엔드, 그리고 캔디의 치아 사원(Temple of the Tooth Relic)과 왕립 식물원입니다. 야라와 캔디에서는 휴식을 취하거나 독립적으로 탐험할 수 있도록 자유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투어는 전담 기사 가이드가 교통을 담당하는 프라이빗 일정으로 운영되므로, 고정된 단체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객 중심으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네곰보 (1~2일차)

서부 해안의 네곰보에서 이틀간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오랜 전통의 어업으로 유명합니다.



네곰보 비치

네곰보의 모래사장은 스리랑카 서부 해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어업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여행을 원한다면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다이빙과 난파선 탐험

산호와 다양한 해양 생물 사이를 누비며 다이빙을 즐겨보세요. 해안 바로 앞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있는데, 지금은 수많은 어종의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Day 3 네곰보 → 갈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으며 형성된 도시 갈레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바다거북 보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들릅니다.



갈레 요새

갈레 요새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기에 건설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자갈길을 걸으며 박물관과 등대를 둘러보고, 가이드로부터 옛 중심지였던 이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Rovin Shanila · CC BY-SA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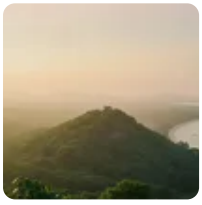
코스고다 바다거북 부화장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코스고다 바다거북 부화장은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으러 오는 멸종위기 바다거북 다섯 종의 둥지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고다 바다거북 보호 프로그램은 새끼 거북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새끼 거북은 물론 치료 중인 부상당한 성체 거북도 보고,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4 갈레

갈레 주변에서 언덕 위 랜드마크와 해안 전통 어업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루마살라

갈레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루마살라 언덕은 하얀 불교 다고바가 자리한 곳으로, 우누와투나 해변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하누만이 떨어뜨린 드로나기리 산의 조각들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 스리랑카의 다섯 장소 중 하나이며, 시타가 랑카에 머무는 동안 지냈던 거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코갈라의 스틸트 피싱

코갈라 해안을 따라 막대 위에 올라앉아 낚시를 하는 어부들을 구경해보세요. 이는 이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 기법입니다. 현지 어부들이 그 방법을 설명해주며, 해질 무렵이면 해안을 배경으로 한 실루엣 사진을 찍기에 좋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Day 5 갈레 → 발라피티야 → 갈레

마두 강에서 맹그로브 생태계를 가로지르는 보트 여행을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마두 강 보트 투어

마두 강에서 두 시간 동안 보트를 타고 맹그로브가 만들어낸 좁은 수로를 지나며, 햇볕을 쬐고 있는 악어와 왕도마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계피를 채취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사는 작은 섬, 물고기 마사지, 그리고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물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UPindia · CC BY-SA 4.0

Day 6 갈레 → 얄라

얄라로 향하는 길에 특별한 차 공장과 독특한 해안 지대를 둘러봅니다.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 농장은 찻잎을 따고 가공하는 전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버진 화이트 티를 생산합니다. 방문 중에는 공장의 역사를 배우고,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 차를 시식할 수 있으며, 찻잎을 구매할 기회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우상고다

우상고다는 독성 중금속을 함유한 사문암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해안 고원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적응한 작은 식물들만 자랄 수 있습니다. 라마야나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불모지는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가 라바나 왕의 영토에 불을 지른 결과라고 하며, 이 고원이 한때 라바나의 하늘을 나는 수레를 위한 공항으로 쓰였다가 하누만이 그 착륙지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A.Savin · FAL

Day 7 얄라 (7~8일차)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인 동남부 해안의 얄라 국립공원에서 이틀간 사파리를 즐깁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얄라는 스리랑카 표범, 물소, 스리랑카 나무늘보곰, 그리고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수많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의 서식처로 유명합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9 얄라

얄라의 호텔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Day 10 얄라 → 엘라 → 누와라엘리야

엘라를 거쳐 고산 지대로 이동하며 그곳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본 후 누와라엘리야로 향합니다.

엘라의 하이라이트

가는 길에는 선명한 초록빛 차밭과 리틀 아담스 피크가 보이는 바위 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나인 아치 브릿지를 건너는 산책을 하며 그 건설 이야기를 듣고, 독특한 루프형 선로 디자인으로 유명한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여정을 마칩니다.

Day 11 누와라엘리야

영국인들의 휴양지로 지어진 고산 도시 누와라엘리야를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누와라엘리야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에게 최고의 휴양 도시였으며, 거리에는 그 시절의 아름다운 별장과 고풍스러운 저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에서는 저렴하고 화려한 엽서를 판매하며, 퀸 빅토리아 파크와 그레고리 호수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2 누와라엘리야

고산 지대의 풍경과 전망대를 감상할 수 있는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의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와 월드 엔드

오히야에 위치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은 고산 초원과 구름 숲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 명소로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월드 엔드와 시원한 물보라가 이는 베이커스 폭포가 있으며, 고유종 동물을 관찰하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13 누와라엘리야 → 캔디

기차를 타고 캔디로 이동하며, 이 도시의 전통을 소개하는 문화 공연을 관람합니다.



캔디 문화 공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공연은 불춤, 칼춤,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캔디안 댄서들을 비롯해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러 예술 형식을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하튼에서 캔디까지 기차 여행

하튼에서 캔디까지 이어지는 기차 여행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산 지대를 지나며, 차밭, 안개 낀 산골 마을, 산, 숲, 그리고 폭포 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Day 14 캔디

캔디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유적지와 식물원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불치사(佛齒寺)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사원의 복도와 홀은 빨강, 크림색, 검정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은 넓은 부지에 란,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포알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 그리고 오르기 좋은 큰 나무들도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5 캔디

캔디의 호텔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